

How Religions are Represented in Foreign Language Culture Textbooks in Korean High School: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Byoungdo Par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content related to religion in the Second Language Culture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demonstrate new aspects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curriculum.

[Contents] In order to examine the role of religion in second language 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eight foreign culture textbooks (French, German, Spanish, Russian, Arabic,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It catego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narratives in each textbook and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narratives.

[Conclusions] In general, these textbook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extbooks that address religion in depth with separate chapters, textbooks that do not set specific chapters but handle religion through annual events and festivals, and textbooks that barely examine religion. The differences in these descriptions are due to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religion is recognized differently by each textbook author, most of whom are not specialists of cultural studies. In order to rectify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unified direction for cultural education and actively involve experts in cultural studies, including religious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Keywords] Foreign language, Culture textbook, Religious education, Religion, 2015 Revised curriculum

* **Corresponding to** Byoungdo Par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pbd1003@gn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고등학교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특징과 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병도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를 대상으로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특징과 한계를 밝히는 것에 있다.

[연구 내용] 제2외국어 문화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 8개 언어(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문화교과서 8종과 영어권 문화교과서 1종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언어별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특징을 분류하고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결론]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은 초창기부터 강조되어왔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와서야 독립된 교과를 통해 별도의 문화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때 종교문화도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양상은 교과서별로 다양하다. 크게 보면 종교문화를 별도의 과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교과서, 별도의 과는 없지만 연중행사, 축제, 통과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교문화를 다루는 교과서, 종교문화를 거의 다루지 않는 교과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는 종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각 교과서의 저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저자들의 대다수가 문화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 전체에서 '문화'와 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없이 각 언어의 전문가들에게 문화교육까지 일임된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교문화를 다룬 교과서에는 편향과 오류가 많고, 일부 교과서는 종교문화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2외국어 문화교육의 공통된 방향의 설정과 교과서 작성에 언어 외의 문화 관련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 종교교육, 종교문화, 2015 개정 교육과정

I. 서론: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에서의 '종교'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종교'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교과목과 교과서(Ko et al., 2018: 1-186)에 대한 논의는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학회와 같은 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중등교육에서의 '종교'라는 독립적인 교과목의 교육이 어떻게 정착되었고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바람직한 종교교육과 교과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Kim, 2007: 41-53; Kim, 2016: 31-51; Ko, 2016: 1-30). 그리고 종교학자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종교교육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Kang et al., 2009: 1-239)도 이루어졌으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과목에 대한 논의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Lee, 2023: 41-60).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종교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정규교과과정에서 독립된 이름과 교과서를 통해 별도의 교사에 의해 정해진 시수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연구와 논의의 중심에 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은 독립된 종교 관련 과목만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니다.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 과목과 윤리, 사회 과목 등을 통해 개별 종교에 대한 종교사적인 지식과 함께 개별 종교의 교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 윤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역사와 윤리 교과목 외에도 종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교과가 있는데 그것이 제2외국어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8종의 언어가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사, 세계사나 윤리 과목과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아예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하나 내지 두 언어만 편성해 두고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8종의 언어를 모두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제2외국어 교과과정 속에 '프랑스어권 문화', '일본 문화' 등과 같은 언어별 문화권에 대한 과목도 8과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별도의 교과서도 8종 출판되었다. 한 언어권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개별 언어권의 문화에 관한 교과서에서도 여러 층위에서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고 이는 교과서마다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제2외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문화 영역을 다룬 연구 자체는 극소수였고 문화를 다룬 경우에도 개별언어 연구자나 교사에 의해 개별 언어문화권을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이며(Bae, 2021: 1-76; Lee, 2009: 1-95; Lee, 2020: 1-82)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 언어권의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필자가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과서를 분석하여 발표한 연구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Park, 2023: 95-111).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8종의 제2외국어 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나 비교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인데, 개별언어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개별언

어 교육에 관해서만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 서로 간의 공통된 인식이나 교류가 없어서 협동작업이 어려웠고, 고등학생의 제2외국어 선택이 과목의 생존을 정하는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개별언어 연구자들이 일종의 배타적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했다. 한 명의 연구자가 8종의 제2외국어 교과서를 다루려는 시도도 하기 어려웠는데 한 언어의 전공자가 여러 언어로 적힌 교과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다. 차후 언급하겠지만 개별 언어권의 문화교과서는 기초레벨이기는 하지만 실제 각 언어만으로 교과서가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간의 벽과 한계 때문에 비교를 통한 분석 자체도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중등교육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의 새로운 측면을 밝히기 위해 제2외국어 문화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외국어 교육의 역사와 문화교육이 강조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문화교육의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출판된 문화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종교문화에 다루고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각 언어권 교과서에서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종교’를 다루고 있는지 교과서를 분류하고 특징을 밝힌다. 이를 통해 각 언어권 문화교과서에서 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있으며 문화에서의 어떤 비중으로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는지 그 양적이며 질적인 특징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과서의 문제와 함께 그 원인을 생각하여 향후 개정 교과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문화교육

1.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문화교육

한국 중등교육에서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의 역사는 해방 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¹⁾ 교수요목기(1945~1954)로 불리는 해방 후부터 미군정 시기 그리고 한국 전쟁기인 1954년까지는 교수요목 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임시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는데 이때부터 제2외국어로서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부분적으로 교육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Lee, 1998: 76). 한편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해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교부가 시행한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서는 외국어 교육으로 영

1)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정리한 이덕봉의 연구(Lee, 1998: 73-104)와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언급한 신선균(Shin, 2023: 27-36)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여 교육하도록 정해진다. 이때부터 기본적인 문법구조, 회화능력과 함께 해당국가 문화의 이해도 외국어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에는 영어 I 이 공통과목이 되며 영어II,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에 이어 1969년 스페인어, 1973년 일본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에 들어서서야 영어와 그 외 외국어가 분리되어서 ‘제2외국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일본어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자리잡게 된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8)에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전 과목이 통일된 체계로 처음으로 기술되기 시작하는데, 다섯 개 언어(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의 교육목표가 “○○어 사용능력을 기르고 ○○인의 문화를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한다”고 공통적으로 기술되게 되는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의 변화는 제4차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8)부터 제2외국어도 I 과 II로 나누어 교과과정을 편성하게 되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이 러시아어가 추가된다. 제7차 교육과정기(1998~2006)에는 아랍어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이전까지 에스파냐어로 불리던 것이 스페인어로 개명된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전면개정은 사라지고 이후부터 수시개정 체제로 바뀌게 된다. 첫 번째 수시개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베트남어가 추가되게 되고 제2외국어 교과들은 한문, 기술, 가정 교과와 함께 생활·교양 영역으로 묶이게 되어 수업 시수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방 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제2외국어 교과과정은 영어와 그 외의 외국어 교과가 분리되고 새로운 언어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8종의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배우는 체계로 변천되어 온 것이다. 이 과정 중에 특이한 것은 어학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권에 대한 교육까지 제1차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 교육과정의 독일어과의 교육목표로는 “표준적인 현대 독일어의 평이한 재료로 구성된 글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독일어를 상용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풍속, 습관 및 그 생각 방법, 사상, 문화,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에 관한 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Lee, 1998: 78). 이후 제2차, 제3차 과정에서도 각 언어를 익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인의 생활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인 협조심과 안목을 길러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제2외국어의 모든 과목이 통일된 체계로 기술되는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어 상용 국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폭넓게 이해한다” 등으로 문화교육의 목표가 일관되게 설정된다. 1998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 속에서 문화 영역이 따로 분리되고 세분화되어 그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어 I’과 ‘○○어 II’라는 과목의 교과서 속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능력 습득이 중심이었기에 문화서술의 분량은 극히 적은 편이었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제2외국어에서의 문화교육은 그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언어의 교과서 속에서 본문 소재나 부록을 통해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독립적인 교과내용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더 강조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별로 문화 과목과 교과서를 별도로 설정하게 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화교육의 방침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구체화되는 제2외국어에서의 문화교육의 목표를 포함해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논해야 할 만큼 복잡한 논의이기에 본고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화교육의 방침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제2외국어는 교과영역으로는 <생활·교양> 영역에 속해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한문, 기술·가정 과목과 함께 같은 영역으로 묶이게 된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2외국어 교과는 한문, 기술·가정의 과목과 함께 16단위로 편성되어 수업시수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집중이수제의 도입으로 인해 제2외국어 교과의 비중은 더욱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교양 교과영역 속에서 제2외국어 교과 과목은 일반선택 <○○어Ⅰ>과 진로선택 <○○어Ⅱ>가 있으며, 전문교과Ⅰ 과목에 <○○어 회화Ⅰ/Ⅱ>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 문화>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어Ⅰ>과 진로선택과목으로 <○○어Ⅱ> 또는 전문교과Ⅰ 과목으로 <○○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 외국어에 해당하는 일반선택과목부터 전문교과과목까지 모두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제2외국어 교육은 학교 또는 학생들의 선택으로 하나의 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제2외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은 어떤 제2외국어를 많이 선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최근 조사자료로는 2021년 12월 중순에 권인숙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고등학교별 제2외국어 과목 개설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2외국어 과목의 실태를 분석한 김정숙의 연구(Kim, 2023: 173-197)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약 90%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2021년 조사 당시에 개설 중인 제2외국어 과목의 언어별 비율(중복 포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어가 85.2%(1501개 학교)로 가장 높으며, 중국어가 78.2%, 프랑스어가 7.6%, 스페인어 6.1%, 독일어 4.9%, 러시아어 0.9%, 베트남어 0.5%, 아랍어 0.2% 순으로 나타난다. 일본어 혹은 중국어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가 95.3%에 이르고 있어 제2외국어

과목 제공과 선택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되고 편중되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일부의 외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종의 제2외국어 교과목의 교과과정의 목표와 내용이나 그것을 반영한 교과서의 분량 자체는 편중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에서의 문화교육의 방향을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제2외국어 교과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평가의 방향 등에 대해서 <○○어Ⅰ>과 <○○어Ⅱ>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2015-74호)의 별책 4(Ministry of Education, 2015a: 973-1349)와 별책16(Ministry of Education, 2015b: 109-485)에 수록되어 있고,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 문화> 과목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별책 23(Ministry of Education, 2015c: 3-31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어Ⅰ>과 <○○어Ⅱ>에서의 교육목표는 언어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외국어 의사소통교육 목표와 함께 “○○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타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고 문화교육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문화학습을 통한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이라는 표현이다. 이러한 문화교육의 목표는 전문교과로 편성된 <○○ 문화> 과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권의 일상생활, 지역사정 및 사회전반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며, 타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고 의사소통능력을 심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건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언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문화적 가치의 존중,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 의사소통 능력의 심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구성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제2외국어 전문교과 영역의 문화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고시에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별로 문화과목에서 다루기로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지역개관, 언어문화(호칭, 경어법, 표현적 특징), 비언어문화(손짓, 몸짓), 일상생활문화(가정, 학교, 교통 및 통신, 의식주, 연중행사, 기념일, 통과 의례), 전통문화(축제, 풍속), 대중문화, 예술문화(문학, 음악, 미술, 영화), 기타(역사, 경제, 과학, 종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언어별로 특별히 강조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생략되는 영역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라는 용어가 명시된 언어는 네 개 언어뿐인데 <프랑스어권 문화>와 <러시아 문화>는 기타 영역에 종교가 표기되어 있고, <베트남 문화>는 전통문화 영역에 축제, 풍속과 함께 종교가 제시되어 있다. <아랍 문화>에만 특별히 대체목으로 ‘종교문화’라

는 용어를 제시하며 괄호 속에 ‘이슬람 종교일반, 종파, 법’이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 외의 언어에는 종교라는 용어는 없으나 일상생활문화 속의 연중행사와 통과의례, 전통문화 속의 축제와 풍속의 영역 등에서 종교문화를 서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교육부 고시에서 이러한 문화교과서의 소재를 제시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상기 제시한 소재는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하며 교과서 전체 구성과 소재 선정에서 교과서 저자의 선택과 의도가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고시의 내용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종교문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베트남 문화>와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는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교과서 속에서도 종교문화에 대한 별도의 과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고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문화과목의 교과서는 8종의 제2외국어에 맞추어 8종의 교과서가 전국의 교육청인정 방식으로 2018년에 출판되었다. 이를 교과서명, 인정교육청·출판사, 저자 그리고 단원수를 기준으로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고에서는 이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와 함께 1종이 출판된 영어권 문화교과서도 추가 비교 대상으로 <표 1>에 포함하여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서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특정 문화교과서 또는 그 내용을 언급 또는 인용할 때에는 <표 1>의 기호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표기한다.

<표 1>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 및 영어권 문화교과서

<Table 1> High School Textbook of Foreign Culture

기호	교과서명	인정교육청·출판사(출판연도)	저자	총단원
A	『일본 문화』	경기도교육청(2018)	홍민표 외 4인	13과
B	『중국 문화』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임승규 외 3인	12과
C	『베트남 문화』	충청남도교육청(2018)	이강우 외 4인	10과
D	『아랍 문화』	울산광역시교육청(2018)	황병화 외 3인	12과
E	『러시아 문화』	강원도교육청(2018)	유학수 외 3인	12과
F	『스페인어권 문화』	전라남도교육청(2018)	정동섭 외 3인	10과
G	『독일어권 문화』	부산광역시교육청(2018)	현희 외 4인	12과
H	『프랑스어권 문화』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고봉만 외 3인	20과
I	『영어권 문화』	앤이능률(2018)	김정렬 외 6인	7과

<표 1>에서 정리한 외국어 문화교과서는 전문 교과영역으로 설정된 만큼 각 언어로 본문이 기술되든지 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기술된 경우가 많다. 『일본 문화』의 경우 본문 대다수는 한국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를 요약 재구성한 일본어 본문이 뒷부분에 제시되고 있다. 『중

국 문화』, 『베트남 문화』, 『아랍 문화』, 『러시아 문화』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교과서의 본문에 외국어 본문과 함께 관련 내용의 한국어 본문 또는 부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어권 문화』는 스페인어 본문 마지막에 짧게 한국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독일어권 문화』는 대다수 본문이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보조적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 문화』와 『영어권 문화』는 본문이 모두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기술되어 있다. 외국어 본문에 대한 번역은 『중국 문화』, 『베트남 문화』, 『아랍 문화』만 본문 끝이나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도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를 함께 비교 분석하는 것에는 큰 언어적인 장벽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고하고 사전과 복수의 번역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필자가 직접 해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다룬다는 것을 먼저 언급해 두고자 한다.

Ⅲ.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분류와 특징

1.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종교문화의 명시적 서술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에서 다루는 각 언어권의 문화서술에서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서술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서에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를 종교라는 범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 장의 교육부 고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교’ 또는 ‘종교문화’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제2외국어 문화과목도 많고 실제 교과서에서도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예도 있어서 용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엄밀히 추출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종교’ 용어의 사용 유무 또는 정도가 종교문화를 설명하는 각 교과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어서 여기서는 ‘종교’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세 종류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교과서는 ①‘종교’라는 용어를 명시하여 별도의 과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②‘종교’라는 별도의 과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종교문화에 대해 극히 일부만 언급하든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종교’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교과서의 목차를 검토해보면, 『베트남 문화』 5과 “베트남의 전통과 종교”, 『러시아 문화』 8과 “종교”, 『아랍 문화』 9과 “아랍 세계의 주요 종교, 이슬람”에서만 과의 제목에 ‘종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들에서만 별도의 과를 마련하여 ‘종교’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언어 교과서의 해당 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 문화』의 5과에서는 “베트남의 전통과 종교”라는 제목 아래 베트남에서 3, 5, 7의 숫자를

기피하고 9를 선호한다는 풍습에 대한 언급(C: 71)이 나오고 혼례, 장례, 제례에 대한 설명(C: 73-75)이 나온다. 그리고 “종교”라는 소제목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베트남 종교문화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한다.

베트남인의 종교는 조상숭배의 성격이 강하다. 불교, 유교, 도교 및 고유의 샤머니즘이 조상숭배라는 큰 틀에 녹아들어 혼합 신앙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주요 특징은 융통성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인은 종교의 목적을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보고, 종교 간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교, 유교, 도교 및 천주교, 기독교도 비교적 갈등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C: 78-79).

이러한 설명 다음에는 여기서 언급한 베트남에서의 불교, 유교,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설명(C: 78)이 이어지고, 다른 문화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근대 신종교인 까오다이교(đạo Cao Đài)와 호아하오교(Phật Giáo Hòa Hảo)에 대한 설명(C: 79)까지 나온다. 『베트남 문화』는 전체 문화교과서 중에서 별도의 과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베트남의 종교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별 종교전통의 역사, 그리고 근대 신종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종교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문화』에서는 8과 “종교”(E: 136-155)에서 “동슬라브족의 자연관과 토속신앙”,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 수용과 정교의 발전”이란 소제목과 함께 고대 슬라브인의 범신론적 세계관과 최고신 페룬, 988년 키예프 루시의 비잔틴 제국의 정교 수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러시아 정교 발전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러시아의 종교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이중 신앙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토착신앙과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 속에 공존하는 러시아 종교문화의 독특한 현상이자 상호의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예로 기독교 수용 이후 변화된 사원의 건설과 공간의 재배치, 부적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 본문에서는 “러시아 정교의 상징과 이콘”이라는 제목으로 이콘의 의미와 특징, 이콘을 신성시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과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E: 152)에서는 “러시아 내의 다양한 종교”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종교를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합법적 인정종교로 정교,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불교를 나열하고 각 종교의 인구비율도 제시하고 있어 정교 외의 종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아랍 문화』의 9과 “아랍 세계의 주요 종교, 이슬람”에서는 본문1 “아랍 세계의 종교”에서 아랍 세계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이며 대부분 아랍인들은 이를 신봉하고 소수의 아랍인들은 기독교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설명이 나오고, 본문2 “이슬람의 5개 주요 기둥”에서는 이슬람의 기본교리이자 의무인 신앙고백, 예배, 자카트(희사), 단식, 성지순례에 대한 설명, 본문3 “순니파와 시아파”에서는 이슬람의 대표적 두 종파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막의 <학습자료1, 2, 3>(D: 114-116)을 통해 본문1, 2, 3의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종교’라는 과가 별도로 설정된 세 교과서의 해당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당 문화권의 전반적인 종교문화를 조상숭배, 이종신앙, 이슬람으로 규정한 다음, 개별 구성종교 또는 교의의 요소를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인 종교명과 함께 그 문화권 내에서 개별 종교가 어떤 역사와 교의가 있는지,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별도의 과를 두고 있는 이러한 세 교과서는 저자들이 해당 문화에 있어서 종교문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라는 용어를 언급한 네 문화과목 중 <프랑스어권 문화>를 빼고는 모두 ‘종교’의 과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교육부 고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2. ‘종교’를 언급하지 않는 종교문화의 설명: 연중행사, 축제, 통과의례, 전통사상

한편, 앞의 세 교과서에서는 ‘종교’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과에서만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문화』에서는 2과 “베트남 사람”에서, 하노이에 있는 문묘와 국자감이 1070년대에 세워졌고 매해 음력 1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며, 수험생들은 시험 전에 문묘와 국자감에 가서 기원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신앙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과 “베트남의 기념일”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일에 지내는 명절인 원단절에 대한 설명과 그날 복숭아나무와 금귤나무로 집을 꾸며 복을 빌고 악한 기운을 막아주기를 기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C: 54-55). 그 외에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중추절의 제례, 건국시조인 흥브엉 제사일(음력 3월 10일) 등 연중행사와 관련된 일정 속에 이루어지는 제례와 종교적 관습 등을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문화』에서도 5과 “가정과 직장”에서 혼례절차와 교회 결혼식, 정교회식 장례절차에 대한 설명(E: 87-89)이 이루어지고, 9과 “전통명절과 국경일”에서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 부활절, 추수감사절인 오펜키, 성탄주간인 스뵈트키 등을 소개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이중 신앙체계’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연중행사라고 할 수 있다.

『아랍 문화』는 거의 모든 과가 이슬람과 밀접히 관련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과 “아랍인과 아랍세계”에서 “이슬람은 모든 아랍 국가들의 공식종교이며 이 나라의 국민은 대부분 무슬림이다”(D: 28-29)라고 하며 이슬람이 아랍 문화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음을 첫 과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으며, 3과 “아랍인의 언어문화”에서는 이슬람 문화의 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알라를 위대하다”나 “알라의 이름으로” 등을 소개하고 있다(D: 44). 4과 “아랍인의 명절”에서 소개하는 연중행사들은 모두 이슬람의 종교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5과 “아랍인의 의식주”, 6과 “아랍인의 관습과 아랍인의 예절”에서 언급하는 결혼관습, 오른손 사용 관습

등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코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7과 “아랍의 역사” 8과 “아랍의 문학”의 내용도 이슬람의 종교사와 종교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점을 보면 제2 외국어 문화교과서와 영어권 교과서를 합친 9종 교과서 중에서 종교문화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고 모든 과를 아우르고 있는 것은 『아랍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랍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문화가 가지는 비중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세 교과서에서 “종교” 외의 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중행사, 축제, 성인식과 같은 통과의례, 혼례, 장례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2외국어 문화과목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차원에서는 교육부 고시가 제시한 내용 중에 ‘일상생활문화’와 ‘전통문화’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베트남, 러시아, 아랍 문화 외의 교과서에서도 ‘종교’라는 별도의 과는 없으나 종교문화를 다룰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일본 문화』의 경우는 4과 “지역 문화”에서 일본의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의식이자 축제인 마쓰리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교토의 기온 마쓰리 등을 소개한다(A: 58-59). 12과 “민속문화”에서는 연중행사와 통과의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의 설과 추석에 해당하는 ‘오쇼가즈’와 ‘오본’에 행하는 신사참배와 조상제사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불교식으로 행하는 장례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A: 171-181).

『중국 문화』에서는 3과 “다민족문화”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을 소개하면서 티베트족은 불교를 믿고 부처에 예를 올리는 ‘차오바이’라는 의식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으며, 몽고족은 샤머니즘을 기본으로 하는 ‘나담(那達慕) 대회’를 음력 6월 4일부터 9일까지 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B: 34-39). 즉 3과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개를 그들의 종교와 연중행사를 연관시켜 하고 있다. 8과 “중국의 명절”에서는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의 의미를 “천지신명과 조상들에게 지난해의 풍요로운 가을걷이에 대해 감사하고 올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 발생한 명절”로 소개하고 있으며(B: 96), 이때 빨간 종이에 글을 적어 문이나 기둥에 붙여서 기원하는 풍습(春聯)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B: 104-105). 9과 “전통문화”에서는 ‘중국의 전통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유가, 도가, 불교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 사상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어권 문화』에서는 3과 “유명한 축제”에서 스페인의 축제인 페리아 데 아브릴(La Feria de Abril)이나 까르나발(Carnaval)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 전통 축제들은 대부분 가톨릭 종교행사와 관련이 있다”, “스페인의 도시와 마을은 모두 가톨릭 수호성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축일이 도시와 마을의 축제날이 된다”고 하며 축제와 가톨릭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F: 36-41). 다음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Día de Muertos, 10/31-11/2)이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죽은 가족과 친지의 명복을 비는 날이라는 설명을 한다. 한편 페루의 인티 라이미(Inti Raymi) 축제는 잉카제국의 태양의 재생을 기리던 축제를 계승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즉 스페인권 문화에서는 스

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도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해서 7과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의 문명”이라는 별도의 과를 통해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며(F: 88-99), 9과 “히스패닉 세계의 관습과 전통”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에 대한 소개도 나온다(F: 116).

3. 종교문화 자체를 다루지 않는 교과서

종교에 대한 별도의 과를 구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문화에 대한 언급이 극도로 적거나 전혀 언급이 없는 교과서도 있다. 『독일어권 문화』에서는 4과 “레저와 축제”에서 독일에 서의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있을 뿐이고(G: 68-69), 2과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미신(aber Glaube)”이라는 제목으로, 일어나서 왼쪽 발이 먼저 땅에 닿는 것이 나 숫자 13, 거울이 깨지는 것 등 독일에서 불길하게 여기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프랑스어권 문화』에서는 9과 “프랑스 축제”에서 5월 1일 노동절, 7월 14일 혁명기념일과 함께 11월 1일 성인의 날, 부활절, 성탄절 등을 나열하고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본문4 “축제의 의미(Le sens de la fête)”에서는 캐나다의 프랑스어권인 퀘벡 사회에서의 축제의 의미에 대해 “크리스마스 축제는 종교적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퀘벡 사회는 더욱더 세속화되고 있다. 종교가 떠난 곳에 상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적 축일이 상업화되는 경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H: 68). 그리고 본문5 “토론”에서는 “축제가 종교적, 영적 의미를 잃고 상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토론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어권 문화』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권 문화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축제를 설명하고 있고 이를 ‘세속화’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제2외국어 교과서 외에 『영어권 문화』에서는 1과에서 미국의 대중음식문화, 2과에서 뉴질랜드의 매너, 3과에서 영국의 박싱데이(boxing day), 4과에서 캐나다 고등학생의 일상을 차례로 다루고 있지만 이 네 개의 과를 비롯한 교과서 전체에서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IV.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의 종교문화 서술의 한계와 과제

1. 종교문화를 서술하지 않는 문화교과서: 종교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부족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와 1종의 영어권 문화교과서를 분류해보면 드러나는 것은 ‘종교’

라는 키워드까지 넣어서 별도의 과로 종교문화를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과는 아니지만 일상문화나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 속에서 종교문화를 언급하는 교과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문화에 대해 극히 일부 또는 전혀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교과서 전체에 있어서 언어별로 종교문화와 관련된 분량과 범위에 대해 일치된 서술의 기준이 없으며 각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에 따라 종교문화를 아예 다루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육부 고시에서 ‘종교’를 직접 언급한 4개 과목 중에 『베트남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세 교과서는 별도의 과를 구성해서 종교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고시와 교과서 내용의 관련성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고시에서 소재의 범위와 항목을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고 교과서 저자들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자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종교문화의 포함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애초에 교육부 고시의 내용과 소재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해당 언어전공의 학자들과 교사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부 교과서 저자들은 종교문화를 포함하고 일부는 왜 제외했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개념과 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각 교과서 저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고시에서 문화교과서에 넣어야 할 소재가 각기 다르고 그 명칭 또한 천차만별인 데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독일어권 문화>의 고시에서는 ‘축제’가 생활문화에 포함되지만, <프랑스어권 문화>와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에서는 전통문화, <일본 문화>에서는 일상생활문화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 고시에서는 ‘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과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서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언어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접두어를 붙이는 형태로 문화의 측면을 나누고 이에 대해 교과서에서 서술하도록 설정하고 있지만 언어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 문화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적도 없으며 교육부 고시 단계에서부터 이미 언어별로 알아서 설정하도록 두고 있고 교과서 저자들이 어떤 내용을 넣고 빼다고 해도 그 언어 전공자 내부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있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교과서의 저자들이 어학, 문학 전공자에 편중되어 있는 점도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고 문화의 구성요소를 정밀하게 따지게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 8종의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와 1종의 영어권 문화교과서의 저자의 대다수는 대학에서 해당 언어와 문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그중에서 종교문화에 대해 별도의 과를 통해 다루고 있는 『베트남 문화』의 저자에는 베트남 역사전공자가 포함되어 있고 『아랍 문화』의 저자에는 이슬람 사상과 법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어학과 문학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사회와 역사, 종교의 세밀한 영역의 학자들이 저자로 들어간 교과서는 종교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외국어 교육이 어학과 문학 전공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베트남어와 아랍어와 같은 언어는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 유학한 다양한 영역의 전공자가 언어와 문화교육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더욱 전문성을 지닌 문화 이해가 가능하고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없이 또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비전공자들이 문화교과서 작성에 참여하게 될 때 문화에서의 종교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그 결과 교과서에서 종교문화에 대한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종교문화의 서술 여부로 교과서를 분류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서유럽 언어이자 오랫동안 한국에서 외국어로서 지위를 굳건하게 지닌 언어권의 문화교과서에서 종교문화에 대한 서술이 배제되거나 극히 적다는 점이다. 반면 뒤늦게 제2외국어에 편입된 베트남, 아랍, 러시아 문화교과서는 별도의 과로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고 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 문화교과서에서는 일정 부분 종교문화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 역시 뒤늦게 편입된 언어권의 학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라는 점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전공자의 대다수가 어학과 문학 전공인 것에 비해, 베트남과 아랍의 경우 경제, 역사, 사회,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은 어학과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이해에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다방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학자층의 다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문화를 배제하고 있는 교과서의 문화권 국가들이 소위 계몽화된 이미지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려왔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권, 프랑스어권의 국가의 역사를 보면 해당 지역의 원주민이 있고 이를 식민화하고 점령해서 이후 해당 언어권에 편입된 지역이 많다. 하지만 『영어권 문화』 교과서에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이나 호주의 어보리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프랑스어권 문화』에서도 캐나다의 퀘벡은 다루나 아프리카 지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페인어권 문화』에서는 남아메리카 문화를 다루며 잉카, 아스카 문명 등을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해당 문명의 종교문화도 설명한다. 그리고 스페인어권 전체의 종교문화에 대한 설명도 다른 유럽어들에 비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 또는 패권주의로까지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고를 넘어서 좀 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설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종교문화 서술에서의 시각의 편향과 전문성의 부족

종교문화가 서술된 교과서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없이 해당 언어의 어학과 문학, 교육학 전공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에는 종교문화에 대한 서술이 있다고 해도 그 시각이 편향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 I・II』 교과서와 『일본 문화』 교과서에서의 종교문화 서술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

해서는 필자도 이전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Park, 2023: 101-108).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 문화』 8과 “언어행동 문화”에서 나오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일본인들은 첫 만남의 대화에서 종교에 관한 질문을 서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종교가 신흥종교, 즉 사이비 종교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와 같이 한 가지의 종교를 믿는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복수의 종교의식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A: 117).

여기서는 일본인들과 첫 만남의 대화로 종교를 화제로 삼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종교문화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그 특징으로 종교를 화제로 삼는 것이 ‘신흥종교’나 ‘사이비 종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일본인들이 복수 종교의식에 참여하기에 스스로의 종교를 설명하기 어려워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어느 것도 일본종교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일본인 일반의 인식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는 설명이다. 종교에 대한 화제를 첫 대면에서 꺼리는 것은 일본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종교’라는 화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 신앙의 자유와 관련이 되며 교의와 공동체에는 다양한 규율과 금기가 존재하는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정치적인 화제만큼이나 첫 대면의 화제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신흥종교’를 ‘사이비 종교’와 동의어로 쓰는 것은 종교학에서는 매우 금기시하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 자체가 중립적이어야 하는 교과서에는 적절하지 않은 편향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종교의식을 이야기하며 한국인이 한 가지 종교만 믿는다고 언급한 것도 적절한 설명이 아닌데 한국인 역시 복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일본인의 종교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70% 이상이 ‘무종교’라고 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Park, 2023: 106-107).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가 그 편향성 때문에 교과서에 적절하지 않은 만큼이나 『독일어권 문화』에서 사용한 ‘미신(aberglaube)’이라는 용어도 종교문화 또는 관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종교학에서는 일찍이 ‘미신’이라는 용어가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의미이기에 이미 부정적 가치판단이 담겨있는 용어라는 지적을 해왔고 학술적 개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신을 종교와 구별하고 종교보다 열등하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이교도의 신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해 온 비하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어권 문화』에서는 프랑스권 문화가 종교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일상생활에서의 축제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한다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프랑스권을 유럽 내 프랑스어권과 캐나다 퀘벡 지역만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이 세속화의 의미에 대해 전

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세속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가톨릭 역사와 함께 ‘프랑스 세속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 ‘라이시떼(laïcité)’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프랑스권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세속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영어권 문화』에서 미국,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를 다루면서 기독교 문화 자체를 전혀 다루지도 않고 있는 점, 이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도 언급하지 않는 점 역시 매우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올바른 문화이해를 위해 빠르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80년이 넘는 제2외국어 교육의 역사 속에서 외국어의 종류는 늘어나고 문화교육도 초기부터 강조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야 겨우 문화과목이 별도로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화교육은 어학교육에 부수적인 형태로만 인식되었고 ‘문화’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서 언어의 전문가가 각 언어권의 문화까지 다루어 온 결과, 종교문화는 일부의 교과서에서만 독립적인 테마로서 다루어졌고 일상문화나 전통문화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통과외래, 축제의 일부로서 소개되든지 아예 생략되어 버리기도 했다. 즉 문화에 있어서 종교문화가 지니는 비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어서 교과서에 따라 종교문화의 서술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이다. 이는 문화의 비전문가가 교과서 작성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종교문화를 부분적으로 서술한 경우에도 편향되고 잘못된 서술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학과 문학 전공자를 넘어서 해당 언어권의 사회, 역사, 종교 등의 전문가가 문화교육과 문화교과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외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어학’이 중심인지 ‘문화’가 중심인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학교육을 위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문화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2025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방향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39-661). 다만 개정 시안 작성 과정 중에는 일본어 교과 개정 논의 속에서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과 사이의 위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2022: 59). 이러한 논의가 더욱 지속되어 어학교육에 종속되지 않는 문화 전문가에 의한 문화교육이 가능해질 때 제2외국어 문화교과서에서도 각 종교문화에 대한 적절한 서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에서도 독립적인 ‘종교’ 교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발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껏 문화교육 차원

에서도 종교교육 차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고등학교 제2외국어 문화교과 전체를 대상으로 거칠게나마 시론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해보았지만 여러 교과서를 동시에 다루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 고봉만, 윤선영, 서은영, 로돌프 매댕제 (2018). 프랑스어권 문화.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Ko, B. M., Yoon, S. Y., Seo, U. Y., & Meidinger, R. (2018). *Culture of French Speaking Countries*.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김정렬, 김은주, 전영주, 고선영, 이호석, 윤장미, 이미애 (2018). 영어권 문화. 서울: 엔이능률.
(Translated in English) Kim, J. R., Kim, U. J., Jeon, Y. J., Ko, S. Y., Yoon, J. M., & Lee, M. A. (2018). *High School Culture of English Speaking Countries*. Seoul: NE-Neungyule.
- 유학수, 라승도, 박주현, 조규연 (2018). 러시아 문화. 춘천: 강원도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Yoo, H. S., Ra, S. D., Park, J. H., & Cho, K. Y. (2018). *Russian Culture*. Chuncheon: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 이강우, 안경환, 강하나, 이정은, 응우옌티타인뎀 (2018). 베트남 문화. 홍성: 충청남도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Lee, K. W., Ahn, K. H., Lee, J. U., & Nguyen, T. T. T. (2018). *Vietnamese Culture*. Hongseong: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 임승규, 나현선, 우혜련, 노혜원 (2018). 중국 문화. 서울: 서울시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Im, S. K., Na, H. S., Woo, H. R., & Noh, H. W. (2018). *Chinese Culture*.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정동섭, 신찬용, 전해찬, 송지혜 (2018). 스페인어권 문화.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Jeong, D. S., Shin, C. Y., Jeon, H. C., & Song, J. H. (2018). *Culture of Spanish Speaking Countries*. Muan: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 현희, 이재호, 이민수, 김형민, 김영진 (2018). 독일어권 문화.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Hyun, H., Lee, J. H., Lee, M. S., Kim, H. M., & Kim, Y. J. (2018). *Culture of German Speaking Countries*.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홍민표, 한중근, 이서준, 고미야 히데타카(小宮秀陵) (2018). 일본 문화. 수원: 경기도교육청.

- (Translated in English) Hong, M. P., Han, J. G., Lee, S. J., & Komiya, H. (2018). *Japanese Culture*. Suw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황병화, 이원삼, 안정국, 김화선 (2018). 아랍 문화. 울산: 울산광역시 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Hwang, B. H., Lee, W. S., Ahn, J. K., & Kim, H. S. (2018). *Arabic Culture*. Ulsan: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condary Sources]

- Bae, J. A. (2021). *Study on Japanese Culture in High School Japanese Textbooks: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 Kim, C. S. (2007). A Study of Religion Textbooks in Contemporary Korean High Schools.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6, 41-53.
- Kim, G. S. (2016). Issue and Task on Subject Matter Education of "Religion" in the Revise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of Korea in 2015.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31-51.
- Kim, J. S. (2023).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Foreign Language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REVUE D'ETUDES FRANCAISES*, 121, 173-197.
- Ko, B. C. (2016). The Revision Hist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Studies) and 2015 Religious Studies Cour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30.
- Lee, D. B. (1998). Transition of High School's Second Language Curriculum, *Journal of Humanities*, 4, 73-104.
- Lee, H. Y. (2009).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n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China Culture> Textbook: Mainly on the base 7th Education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 Lee, J. C. (2023). Changes in Religious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Polic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41-60.
- Lee, J. M. (2020). *A Study on the cultural Contents in High School Japanese 1, 2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Park, B. D. (2023). How Japanese Religions are Represented in Japanese Language and Japanese Culture Textbooks in Korean High School.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ssociation, 105, 95-111.

Sin, S. G. (2023). The Direction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How to Conduct Japanese Studies at the University.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ssociation*, 106(2), 27-36.

강돈구, 윤용복, 이해정, 송현주, 류성민 (2009). 종교교육 비교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ng, D. K., Yoon, Y. B., Lee, H. J., Song, H. J., & Ryu, S. M. (2009).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us Education*.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고병철, 이진구, 조현범, 박범석, 박성중 (2018). 종교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Ko, B. C., Lee, J. K., Cho, H. B., Park, B. S., & Park, S. J. (2018). *Religious Studies*. Sejong: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교육부 (2015a).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고시 제2015-74호 [별책 4]).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s* (#2015-74 [Annex 4]).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5b). 2015 개정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2015-74호 [별책 16]).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Foreign Language Subjects* (#2015-74 [Annex 16]).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5c). 2015 개정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고시 제2015-74호 [별책 23]).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5c).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Foreign Language Special Subjects* (#2015-74 [Annex 2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22). 2022 개정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2022-33호 [별책 16]).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Foreign Language Subjects* (#2022-33 [Annex 16]).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022 개정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연구.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ranslated in English)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2022). *Development of 2022 Revised Second Foreign Language Curriculum Proposal (Final Draft)*. Jincheon: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